

회의록(안)			
회의명	제17차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KrIGF 프로그램위원회		
일시	2017.03.24(금) 13:30~15:00	장소	KISA 서초청사 인터넷주소센터
참석자 (총 15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오병일(진보네트워크), 김태은(KISDI), 박기식(ETRI), 박지환(오픈넷)*,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오익균(KAIST), 이금노(한국소비자원), 이동만(KAIST), 이민수(가비아), 조진현(KISA), 차재필(인터넷기업협회) (존칭생략, 위원장 제외 가나다순)(*온라인참여) - 비위원: 박민정(KISDI), 이영음(한국방송통신대)*, 박유리, 박신영(이상 KISA) (*온라인참여) 		
- 위원: 11인			
- 비위원: 4인			

□ Action Items

- 운영위원회 이정우 위원(연세대 교수)과 장소 임차 및 주최·주관 참여 방안을 논의
- KrIGF 매뉴얼&미션문서 보완 후, 온라인을 통해 재공유
- 사무국에서 2017 KrIGF 예산(안), 서포터즈 세부 모집(안)을 차기 회의에서 공유

□ 2017년 KrIGF 개최일자 및 장소 확인

- 일자 : 2017년 9월 15일(금)
- 장소 : 연세대학교(미정)
 - 이정우 위원(연세대 교수)과 구체적인 장소 및 주최·주관 참여 방안을 협의 중에 있음

□ KrIGF 매뉴얼&미션문서 작업 현황 공유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매뉴얼

2017. 3.

1. KrIGF 소개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 기관 및 단체가 공동 주관하여 1년에 1회 개최하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자간 정책 대화를 위한 포럼입니다.

* KrIGF 홈페이지 : <http://krigf.kr>

- IGF 와 regional IGF 소개

2. KrIGF 의 목적

-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 촉진

- 주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

- 아태지역 IGF 및 세계 IGF 와의 연계를 통해,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의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에의 참여 촉진

3. KrIGF 프로그램위원회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산하의 워킹그룹인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프로그램위원회는 정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들로 구성되며, 프로그램위원회 회의는 참여를 원하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 2017 년 KrIGF 프로그램위원회

4. KrIGF 의 운영 원칙

1) 개방성과 투명성

- KrIGF 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행사에 이르기까지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 KrIGF 의 모든 논의와 결과물은 KrIGF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kiga_all@krigf_pc@), SNS 를 통해서 공개되며, 누구나 프로그램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포용성

KrIGF 프로그램위원회는 국내 인터넷 이용자 공동체의 관심사를 폭넓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KrIGF 의 프로그램은 누구나 의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이용자 공동체와 협의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KrIGF 프로그램위원회는 보다 다양한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홍보를 위해 노력합니다.

3) 상황식 의사결정

KrIGF 프로그램위원회는 각 이해당사자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바탕으로 상황식으로 관련 정책을 결정합니다.

4) 비영리

KrIGF 의 모든 회의와 행사는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며, 누구나 비용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KrIGF 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관, 업체, 단체의 기부와 후원을 요청합니다.

5) 멀티스테이크홀더

KrIGF 는 정부(공공기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동등한 참여와 협력을 원칙으로 합니다. KrIGF 프로그램위원회에서부터, 행사 워크샵 발언자의 구성까지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5. KrIGF 준비 과정

<관련 논의>

- 문서의 취지: 향후 효율적인 KrIGF 프로그램위원회 및 포럼 운영을 위함. 외부적으로는 KrIGF의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 참고 문서: IGF Initiatives Toolkit 및 APriGF Operating Principle
 - ※ 참고: http://www.intgovforum.org/multilingual/index.php?q=filedepot_download/3568/480
<https://rigf.asia/msg.html#op>
- (오병일) 1~4항은 KrIGF 관련 원칙적인 내용을 간략히 다루고 있으며, 5항은 KrIGF 준비 과정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하고자 함
 - 문서 초안이므로 디테일한 토론보다는 문서 작성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음. 온라인을 통해 초안 공유하여 의견 수렴(문구 등)할 예정
 - Google docs를 통해 의견 수렴 후, KrIGF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
- (이동만) Process Map을 먼저 구성하여 큰 틀을 만든 후, 세부 내용(원칙 등)을 작성했으면 함. Wiki 스타일로 만들어서 문서 작성완료 후에도 자유롭게 내용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면 좋을 것임
- (윤복남) 초안 작업은 방대한 작업이므로 목차만 의장님이 작업하신 후, 나머지는 공동 작업을 제안
 - 5항에 들어갈 내용과 관련하여 소목차를 미리 정하면 빠른 진행이 가능할 것임
- (오병일) 추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 차기 회의 전까지 온라인으로 재공유 드릴 것

□ 2017 KrIGF 서포터즈 운영계획(안) 검토

- 2017 KrIGF 개최시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 및 운영하여 포럼의 원활한 운영 및 학생 참여·관심을 유도하고자 함
 - ※ [붙임 1] 문서 참고

- (사무국) 작년 KrIGF와 대비하여 학생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련 학과나 전문 지식 없이는 리포트 작성은 어려움. 논의에 참여한 패널 및 제안자 분들의 도움이 필요함
- (김태은) 현장 리포터가 초안을 작성하고, 제안자 혹은 패널이 초안 검토 및 최종 리포트를 제출하면 좋을것으로 사료됨
- (오병일) 지난해 KrIGF에서 패널을 통한 세션 리포터 수렴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 학생 참여가 적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번 시도해보았으면 함
- (오병일) 선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선발 기준, 점수 분배 등). 자격요건을 학생에 한정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사료됨
 - 면접보다는 지원서 심사를 추천. 지원자는 인터넷거버넌스 및 관심 분야에 대해 1장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함
- (윤복남) 예산 및 관리가 어렵지 않다면 10명 내외로 구하면 좋을 듯
- (이동만) 전체 트랙을 4개(총10~12개 세션)로 가정한다면, 한 트랙당 2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사료됨
 - 2인 1조: 비디오 촬영 및 리포트 작성을 번갈아가며 역할 담당
- 세부적인 서포터즈 모집(안)은 다음 회의 때 다시 검토
 - 범용성을 위하여 “리포터 → 서포터즈”로 단어 수정

□ 위원별 KrIGF 세션주제 제안 및 공유

※ [붙임 2] 문서 참고

- (오익균) KISA 연구 용역과제와 KrIGF 주제를 연계하여 진행하고, 과제 수행자를 패널 혹은 발표자로 초대할 것을 제안
 - 마찬가지로 NIA나 KISDI 등에서도 연구과제를 통해 협력했으면 함

- (김태은)
 - 프로그램위원회가 사전에 Track을 구분 후, 세션 제안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제안. 제안의 방향성 및 패널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
 - DONA foundation 관련하여 새로운 인터넷 관리체계의 전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KrIGF 주제로 적당한지 검토해보았으면 함
 - Child Online Protection, Digital rights, Uberization, Fake News 등과 관련된 이슈도 중요하다고 생각
 - 홍보를 위하여 세션 제안자는 대상청중(target audience)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함
- (오병일)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이슈(개인정보보호 문제, 인공지능 문제 등)를 다루었으면 함. 발제 후 토론이 아닌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
- (김대원)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틀 안에서 유관된 내용을 세부 주제로 다루었으면 함
- (이현재) O2O와 노동의 변화 관련(카카오택시, 우버 등 새로운 노동 형태가 등장함에 따른) 주제. 4차 산업혁명에서의 인력 대체에 관한 문제 등 사회학적 이슈를 주제로 다뤘으면 함
- (박기식) PDP WG에서 논의 중인 사항들을 KrIGF에서 공론화하고자 함
 - 미래부를 패널로 초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언론에도 보도했으면 좋겠음
 - 제목은 “인터넷거버넌스 체제의 효율적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세션”
- (이동만)
 - KIGA 내 WG들은 의무적으로 한 세션씩 담당했으면 함
 - 사전에 Track 지정 후, 제안자 섭외(김태은 위원님 의견)에 찬성
 - 가능하다면, 중국, 일본의 패널을 초대하여 한·중·일 간 로컬 인터넷거버넌스의 현위치를 파악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한·중·일 로컬 인터넷거버넌스의 현재와 미래전망”을 주제로 세션을 제안

o (KISA)

- 작년 튜토리얼 세션은 '인터넷 주소 중심 국제기구'로 소개되었으나 올해는 ' 전반적인 인터넷 관련 국제기구'로 소개했으면 좋겠음
- 한자도메인 논의 현황은 계속 알리는 차원에서 올해도 진행했으면 함. 도메인 등록정책 WG과 협력하여 진행

o (차재필)

-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블록체인,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등이 관심 분야로 생각됨. 산업군 별로 나눈다면 게임 산업, 전자상거래(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전망 등), 공유경제 등으로 그룹을 나눌 수도 있을 것.
-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감소 문제 관련하여 극복 방안을 세션 주제로 한다면 산업계에 좋은 홍보가 될 것.
-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문학적, 철학적 이슈가 많이 줄어들음. 이에 관한 이슈를 기업에서 제안하고 사회 통합적 방향으로 이끌어어나가면 좋을 듯

o (박지환) 공인인증서 및 전자서명 제도개선 연구 관련하여 시민사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KISA 내부 연구과제를 진행한 전문가들과 함께 KrIGF에서 세션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함. Fake News도 주요 관심사임

o (윤복남) 이견이 있는 집단(시민단체와 정부 관계 등)을 접촉할 수 있도록 두 집단 사이에 이견이 생기는 주제를 찾아서 이해관계자 사이에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기를 제안

□ KrIGF 트랙, 슬로건, 프로그램 기획

<트랙 관련 논의>

o 앞서 제안된 다양한 세션주제 아이디어에 맞춰 4개의 유사한 트랙 주제가 논의되었음

o Track 1: 기술 트렌드

- 블록체인, 핀테크 등 다양한 테크니컬 이슈를 다룸
- 산업계 참여 독려를 위한 트랙. 하나의 트랙이 경제적·산업적으로 초점이 맞춰지면 핀테크, O2O, 소비자보호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
- 기술 관련 트랙은 기존과 포맷을 달리해도 좋을 듯. 강의 방식이나 유명한 초청 등

o Track 2: Digital Divide, 혹은 Digital Economy(디지털 경제)

-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관련 내용을 담은 트랙
- 디지털 관련 주제를 아우를 수 있는 트랙제목 논의 필요

o Track 3: 인권과 프라이버시(디지털 권리)

o Track 4: Bottom-up Proces 관련 주제 혹은 인터넷거버넌스

- o (오병일) 지난해 KrIGF 트랙을 참고하면 1-인터넷 거버넌스, 2-인권, 3-사이버보안, 4-Emerging Issue가 있었음
- 인터넷 경제 부분을 포함하면 좋겠음. 사이버보안은 틀이 너무 좁으니 좀 더 넓은 개념의 트랙주제가 필요
- 디지털 경제, 디지털 권리, 디지털 거버넌스처럼 트랙 제목을 통일성 있게 하는것도 좋을것으로 사료됨

<슬로건 관련 논의>

o (박기식)

- 슬로건 : 소통과 공유를 위한 인터넷 거버넌스
- 소통이 안 됨으로써 생긴 문제를 공유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KrIGF에서 노력하였으면 좋겠음

o (오익균) 주제나 슬로건 결정에 있어 인터넷에 관한 내용을 부각했으면

함. 예를 들어, “디지털 이코노미 → 인터넷 이코노미” 등

- 각 트랙명 및 슬로건은 다음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임

□ 차기 회의 일정

- 2017년 4월 28일(금), 13:00~14:00(예정)

- 붙임 1.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서포터즈(리포터) 운영계획(안)
2. 위원별 KrIGF 세션주제 제안 및 공유

[붙임 1]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서포터즈(리포터) 운영계획(안)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서포터즈(리포터) 운영계획(안)

※ 작성자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사무국

○ 개요

- 2017 KrIGF 개최시 대학생 서포터즈(리포터)를 모집 및 운영하여 포럼의 원활한 운영 및 학생 참여·관심을 유도

○ KrIGF 개최일

- 2017년 9월 15일(금), 연세대학교(미정)

○ 모집/운영 방안

- 포럼 개최 2~3개월 전, 전국 대학교 및 대학원에 서포터즈 관련 공문과 포스터 발송
- 각 분과별 학계 위원분들 및 KrIGF 세션 패널로 참여하시는 교수님들께 지원 요청
- 관련 학과(정치외교, 기술경영, 컴퓨터공학 등) 및 관심이 있는 학생들 중 대학교 3~4학년, 대학원생 위주로 지원서 접수
※ 관련 학과 및 실적(혹은 위원 추천)이 있을 경우 우대
- 서포터즈 모집 이전에 프로그램 및 세션 주제가 정해진다면, 지원자가 원하는 세션을 선택하도록 안내
※ 1개 세션에 여러 지원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하여 1~3지방까지 기재
- 사무국에서 지원서 접수 및 검토 후,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최종 서포터즈 선발(4인~6인 선발 고려)

위원별 KriGF 세션주제 제안 및 공유

- 서포터즈(리포터) 역할
 - 담당 세션별 운영/진행을 지원 : 세션 제안자 및 패널 이력 정리, 발표자료 취합 등 세션 운영을 지원
 - 세션별 주요 의제 및 질의응답 등 전반적인 세션 내용을 양식에 맞춰 리포트로 정리
- 서포터즈 지원 혜택
 - 포럼 개최 후 서포터즈 활동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추후 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도움이 될만한 증빙 제공
 - 파트타임 비용, 중식 및 교통비 지원
 - ※ 구체적인 교통비 지원 금액은 추후 협의가 필요
 - 서포터즈용 기념품 제공
- 기대효과
 - 포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제고를 통한 향후 포럼의 인지도 확산 기여
 - 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원활한 포럼 운영 및 진행

□ 오익균(KAIST)

- KISA에서 외부위탁으로 수행한 연구용역 과제 중 인터넷거버넌스와 포럼 성격에 맞는 주제(기술, 제도, 보안 등)를 착안하는 것을 제안
- 결과물이 나온 과제에 한하여 **과제 수행자가 주제 발표를 맡고, 패널 또는 청중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
- KISA에서 '15~'16년에 수행한 연구용역 과제 예시(KISA 홈페이지 참고)
 - ※ 본 예시는 인터넷 인프라, 제도, 서비스, 보안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함
 -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컨설팅
 - ▶ 무제한인터넷주소(IPv6) 전환 종합지원 컨설팅
 - ▶ 발신번호 변작방지 제도개선 연구
 - ▶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사례 및 적용분야 연구
 - ▶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인증·접근제어 모델 및 안전성 시험·검증 기술 연구
 - ▶ 공인인증서 및 전자서명 관련 제도 개선 연구
 - ▶ 신규 전자인증체계 구축방안 연구
 - ▶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유형별 심층분석 연구
 - ▶ 국내외 핀테크 관련 기술 및 정책 동향 분석 연구
 - ▶ 차세대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개선전략 연구
 - ▶ 머신러닝기반의 침해사고 공격분석 방안 연구
 - ▶ 데이터마이닝 기반 악성코드 변종그룹 식별방안 연구
 - ▶ IoT제품 보안인증 및 보안성 유지관리정책 추진방안 연구
 - ▶ IoT 스마트 홈가전 보안 가이드 개발

□ 김태은(KISDI)

1. Track 구성

- 2016년에는 워크숍 제안을 받고 프로그램 구성시 track을 설정한 것으로 기억함
- 워크숍 제안시부터 track(coverage 포함)을 설정하는 것이 제안을 촉진시킬 수 있지 않을까

2.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

- 디지털콘텐츠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번호로 ITU에서 DONA foundation¹⁾ 관련하여 이슈가 된 사안임
- 식별자 및 HANDLE 시스템을 통해 IP 주소 기반 인터넷 체계를 새로운 정보 교환 및 관리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가능성 우려도 제기
- IoT의 확산 등과 관련하여 인터넷거버넌스의 함의가 있는가?
- 국내에서는 KISTI는 '16. 1월 국제 DOI 재단(IDF)으로부터 10번째 DOI 등록관리기관(RA, Registration Agency)으로 승인되어, DOI의 홍보 및 DOI 번호 등록과 관리의 역할을 수행
-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는 2000년 디지털 콘텐츠식별시스템 구축으로 (정통부) 시작되었으며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관할
※ 링크 : www.uci.or.kr/kor/file/main/main.jsp

1) 도나 재단 (Digital Object Numbering Authority(DONA) Foundation)

- 2014년 1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 창설된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NPO). 동 재단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DOA 관련 기술적 조정, 응용, 진화 등을 위한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타 서비스
- 동 재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DOA의 핵심 컴포넌트인 글로벌핸들레지스트리(GHR)의 등록 및 해석시스템의 관리, 유지, 조정
 - Multi Primary Administrators(MPAs)로 알려진 기관들의 GHR 서비스 허가, 조정 등의 업무
- 서비스협약(MPA Service Agreement)을 맺어 다음의 기관을 Multi-Primary Administrators (MPA)으로 승인하고, 각각의 MPA에 DOI의 Prefix를 부여. 각 MPA는 해당 Prefix로 시작되는 DOI 할당/등록의 역할 수행
 - (미국) Corporation for National Research Initiatives (CNRI) : Prefix 20
 - (중국) Coalition for Handle Services – China (ETIRI, CDI and CHC) : Prefix 86
 - (독일) Gesellschaft für Wissenschaftliche Datenverarbeitung mbH Göttingen (GWDG) : Prefix 21
 - (미국) International DOI Foundation : Prefix 10
 - (사우디아라비아)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mmission (CITC) :

3. Vulnerable people on internet; child, women, senior, poor

- 2016년에 여성관련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으나 너무 포괄적인 내용으로 현황소개 정도였으며 심화된 추가 워크숍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는 불확실
- Child online Protection 관련 이슈도 매우 중요
- 금번 태극기 집회에서 본 바와 같이 노년층(senior)이 SNS를 통한 선동 및 가짜 뉴스에 대해 검증할 능력도 없으며 일방향적으로 설득, 기망, 세뇌될 수 있으며 피싱과 같은 형태의 sns를 통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접근성, 활용성에 있어서 취약성도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매우 취약한 계층이 될 수 있음

4. Digital rights

-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디지털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 권리에 대해서 알아서 주장하고 보호할 수 있음
- Digital Citizen

5. Uberization

- 공유경제는 인터넷으로 가능해짐-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상존
- 경제, 사회적 측면, 법, 제도적 측면 포괄적인 검토

6. Fake News

- 미국대선 시부터 문제가 되었으며, 국내에서도 탄핵정국에서 다수의 가짜뉴스 발생
- 트럼프는 Fake News 프레임으로 언론을 공격
- 가짜뉴스의 파급효과/대응, 검증방법 등

7. 워크숍 구성 및 추진관련

- KrIGF에서 다루는 주제는 매우 광범위한 반면 집중도는 떨어지므로 제안서 등에 트랙별, 주제별 대상청중(target audience)을 포함시

켜 잠재적 참가자들에 대한 참여 독려 및 홍보 진행

- 변호사회 혹은 기업 등의 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시켜 참가를 촉진할 경우, 해당 기관, 단체 등의 관계되는 관심주제, 발표자 등을 포함
- 기존의 관련과제 등과의 워크숍주제 연계. 관련학회, 행사, 학술 행사 등과의 연계도 고려
- 워크숍 제안 시 모든 발표자, 토론자를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제안자가 섭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편중된 인사 섭외만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제안 채택 시에는 잠정적인 리스트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프로그램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으로부터 자문 및 추천을 통해 풀을 확대하고 리스트를 최종화

□ 오병일(진보네트워크)

- 2017 KrIGF에서 4차 산업혁명 혹은 지능정보사회, 혹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다루어보았으면 함
- 최근, 관련 토론회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논의들은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함
- 세부적으로 다루어보았으면 하는 내용
- 개인정보보호(혹은 프라이버시) 정책의 개선 방안
- 인공지능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 등
- 발제 후 토론 형식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패널을 모셔서 자유 토론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함

□ 김대원(카카오)

- KrIGF 이름에 맞게, 인공지능 거버넌스란 큰 틀 안에서 유관된 내용을 세부 주제로 나눠 논의하는 방식을 제안